증권

Sector Issue Brief 2026. 05. 06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관련

Check Point

-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증시 참여
-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본격화
- 추가적인 거래대금 확대 요인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삼성증권과 IBKR 제휴.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본격화

▶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미국 온라인 증권사인 인터액티브 브로커스(IBKR)와 제휴를 통해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음. IBKR은 낮은 수수료와 자동화된 거래시스템을 바탕으로 150개국에 주식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객예수금 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30%에 달함

▶ 삼성증권 이외에도 지난해 통합계좌 혁신금융서비스에 최초로 지정된 바 있는 하나증권이 홍콩의 푸투증권(FUTU)과 제휴를 맺고 국내주식 시세조회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6월부터 외국인의 국내주식 거래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 이밖에도 키움증권은 미국의 위불(Webull)과 올해초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 등도 해외법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현지 증권사와 제휴를 추진 중

▶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엄격한 계좌개설 요건(국내에 진출한 대형 해외증권사에 국한)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했음. 이에 지난해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와 제휴를 통해 해외 중소형 증권사에게 계좌개설을 허용했으며(규제특례 부여), 연말에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규정개정을 완료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추가 유입. 업황지표 호조세 지속

▶ 국내 증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IBKR, FUTU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 브로커리지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해당 증권사는 추가적인 수익확대가 가능. 물론 수수료율 수준 및 배분비율 등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향후 제휴사례 확대 및 경쟁심화에 따른 요율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나 통합계좌 제도도입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부과가 가능할 전망. 브로커리지 MS가 높은 회사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지속 확대 예상

▶ KOSPI 역대최고치 달성과 함께 국내 개인 뿐 외국인 거래규모 또한 동반 확대. 거래소 기준 외국인의 일평균 거래대금 규모는 26년 연초 이후 월평균 13조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함. 3월말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잔액은 1,576조원으로 25년말 대비 19%, 최근 1년간 두배 이상 확대되었음. 지역별로는 미국 비중이 40%를 상회해 미국 증권사와의 제휴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듯

▶ 4월초 주춤했던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반등하고 최근 들어서는 규모가 일평균 80조 수준으로 급증. 지속적인 지수 상승과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해외 개인투자자 유입이 동반될 경우 추가적인 거래대금 확대가 예상됨. 거래소 거래시간 연장도 추진되고 있어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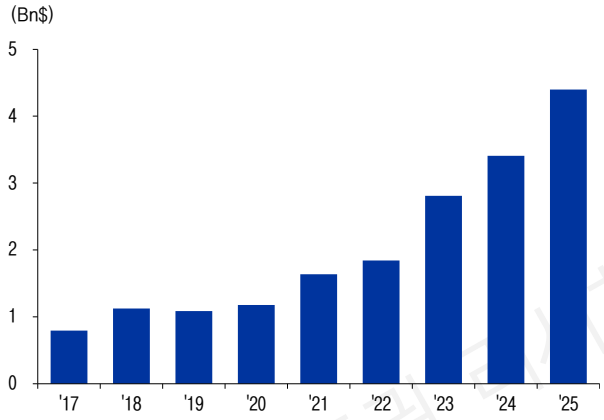
그림1 외국인 통합계좌 관련내용과 국내-해외 증권사 제휴 사례

시기	내용
2017년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도입 : 외국인 통합계좌란 외국인(최종투자자)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국내주식을 일괄매매·결제 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국내 개인투자자의 美 주식 거래방식과 유사)
2023년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내역 즉시 보고의무 폐지
2025년 4월	▷통합계좌 개설이 제한된 해외 중소형 증권사에게 계좌개설 허용 (배경)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요건이 엄격: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사로 제한 (방안) 국내 증권사와 제휴를 통해 해외 중소형 증권사에게 계좌개설을 허용(규제특례 부여) - 하나증권-홍콩Emperor증권 통합계좌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추가지정
2025년 11월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배포 : 계좌개설, 주주권리 배정, 보고절차, 내부통제 등 실무 프로세스 구체화

회사	해외 제휴 증권사	내용
삼성증권	인터액티브 브로커스(IBKR,미국)	- 미국 온라인 브로커리지사, 460만 고객계좌 보유 - IBKR은 낮은 수수료, 글로벌 투자 서비스, 높은 예수금 금리 등 강점 보유
하나증권	푸투증권(FUTU,홍콩)	- 홍콩 기반의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계좌수 336만) - 한국 주식 시세조회 서비스 개시. 6월부터 주식거래 서비스 제공
키움증권	위불(Webull, 미국)	- 26년 2월 파트너십 체결
미래에셋증권	-	- 아시아 현지법인과 협력. 상반기 중 서비스 출시 목표
유안타증권	-	- 미국 현지 증권사와 협력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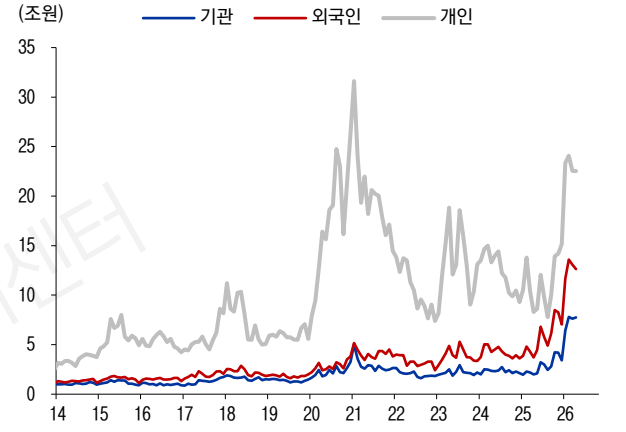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IBKR 연간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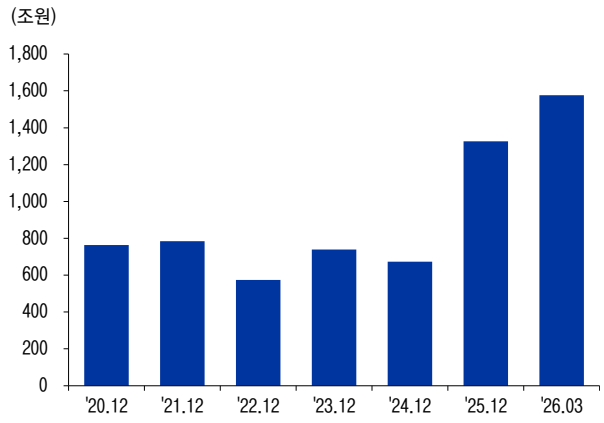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투자주체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KRX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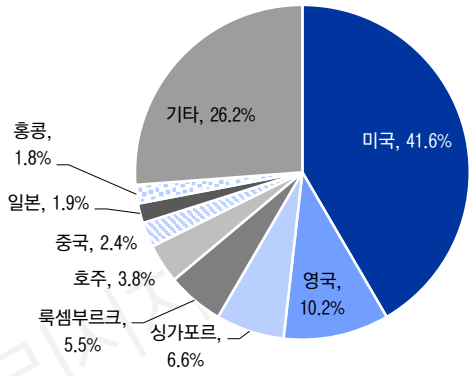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 보유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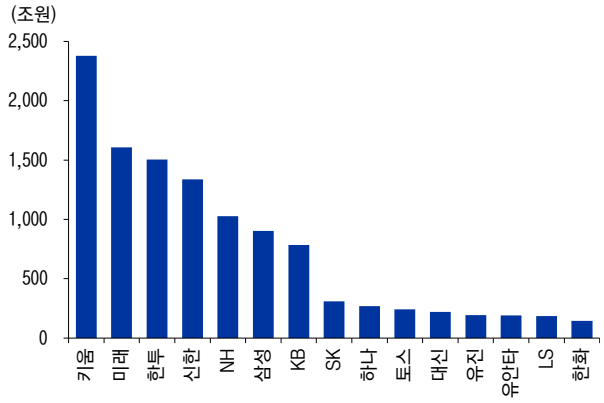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 국가별 보유비중(26.3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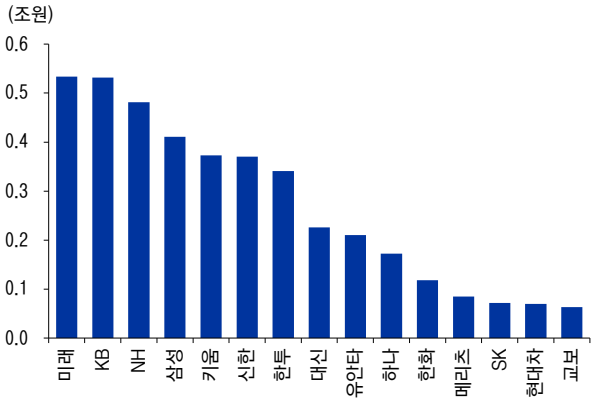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 증권사 주식 약정금액(25 년 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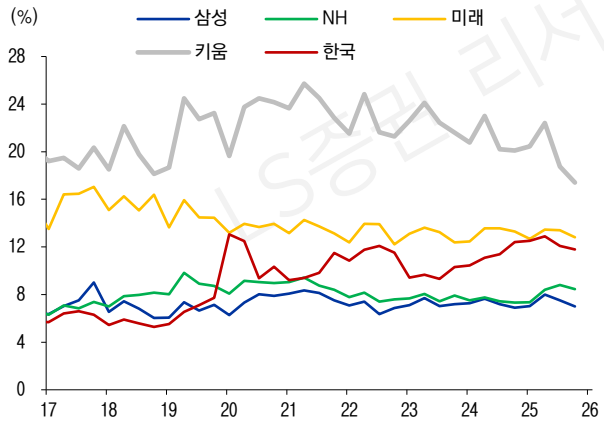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국내 증권사 주식 수수료수익 (25 년 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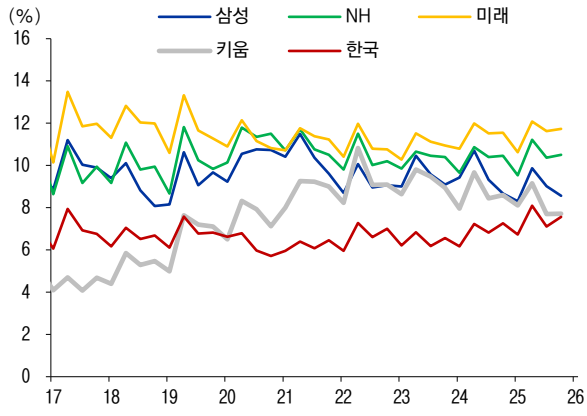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대형 증권사 약정 MS 추이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대형 증권사 수수료수익 MS 추이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9.3% 10.7%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4. 01 ~ 2026. 0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